

No. 2013-38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9. 16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경제의 회복기조와 정책과제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1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상황지표

- 엔화환율 : 시리아정세의 완화, 중국경제지표의 호조 등에 따른 엔 매도 수요증가로 약세
- 장기금리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공개시장조작, 세계적인 장기금리상승세 중단 등에 따른 국채매입수요 증가로 하락세

구 분	9.9(월)	9.10(화)	9.11(수)	9.12(목)	9.13(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9.67	99.70	100.43	99.50	99.7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96.17	1,091.80	1,080.52	1,087.92	1,087.66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205.23	14,423.36	14,425.07	14,387.27	14,404.67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50	0.735	0.730	0.720	0.725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7월 실업율은 3.8%로 개선, 여성실업율이 3.3%로 15년 10개월 만에 최저
- 201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월비 0.1%로 디플레이션 탈출 조짐을 시사
- 2013년 7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 흑자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
對한국 투자	(40)	7.7				9.1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
엔화 환율	對미달러 對원화(100엔)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경제예측의 상향수정과 아베노믹스의 효과』 닛세이기초연구소, 9월7일  
\*출처: <http://www.nli-research.co.jp/report/report/2013/09/repol309-2.html>
- 『수출에 의한 국내 부가가치 유발구조 : 한중일 현황비교와 향후 전략』 일본종합연구소, 9월12일  
\*출처: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7015.pdf>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경제의 회복기조와 정책과제

- 일본경제가 9월 8일 도쿄올림픽 개최지 결정 소식에 이어, 내각부가 발표한 상반기 3%대의 높은 성장 및 회복기조 진입 소식 등으로 활기와 기대를 높이고 있음

### □ 2분기 GDP성장율의 대폭 상향수정과 경기회복 기조

- 일본정부가 2분기 GDP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도 경기판단을 상향수정
  - 일본 내각부가 9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9%, 연율 환산 3.8%로 8월 발표한 속보치 2.6%보다 크게 상향 수정
  - 일본정부는 13일,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판단을 2개월 만에 상향수정하고, 약 1년 만에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음을 공식 인정
- 이 같은 경기판단은 고용과 소득의 개선 및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경기의 선순환이 뚜렷해진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2분기 설비투자는 1.3% 증가하여 2011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 속보치 -0.1%에서 1.4포인트 상향 수정되었는데 소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의 투자가 견인
  - 공공투자도 3% 증가하여 속보치 1.8%를 크게 상회한 동시에, 민간재고투자도 상향수정
- 개인소비와 수출에 대해서는 각각 회복경향 및 회복 움직임의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월보다 낮춤
  - 연초부터 계속된 회복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나, 전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내각부에서 판단하고 있음
  - 개인소비는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에 하향 수정
-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세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8월 월례보고의 표현을 바꾸지 않음
- 해외경제에 대해서는 인도 등 아시아신흥국의 일부에서 경기의 취약성도 보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해외경제에 의한 경기하강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음

### □ 경제전망

-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013년에 2.6%~3.1%(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내각부가 시산한 잠재성장을 0.7%보다 훨씬 높은 성장으로서, 그만큼 소비세 증세의 환경조성이 순조롭다는 점도 시사
- 엔저·高주가를 기점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와 최근 도쿄올림픽 유치가 경기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요소도 잔존
- 소비심리의 개선이 부진하고 수출 움직임도 불투명하다는 점임
  - 내각부가 8월까지 소비자태도지수가 3개월 연속 악화된 점을 들어, 소비자심리 개선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 엔저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7월 중 대아시아 및 대미 수출이 모두 전월보다 하회하면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데 이어, 신흥국의 경제 감속 움직임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일본종합연구소에서 전망
- 2014년도 민간경제연구소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많은 기관들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증세에 대비한 가수요의 반동으로 급격한 감속을 예상
- 디플레이션 탈출 움직임이 보다 확실해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지탱해주는 경제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 예상되는 경제대책

- 큰 폭의 GDP 상향수정과 경기회복 기조로 일본정부가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재건을 양립시키기 위한 경제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하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
- 일본 재무성은 2조엔 정도라면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규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증액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
- 추경예산 편성 외에 감세조치가 초점으로 부상
  -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이달중으로 설비투자과 벤처투자,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정을 추진
  - 경제산업성 등은 국내 설비투자액을 70조엔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억엔 규모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하 및 소득세의 일시적인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 그러나 대규모 감세는 소비세 증세 목적인 재정재건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
  - 법인세 1% 인하는 4,000억 엔의 세수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2015년에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반감시키기로 한 국제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③ 경제정책동향

#### □ 도쿄올림픽 개최, 디플레이션 탈출의 기폭제로 제 4의 화살

-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됨에 따라, 아베총리는 “올림픽을 기폭제로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축소지향의 일본경제를 불식시키고 싶다”면서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에 이어 제4의 화살 효과가 있다고 평가
- 도쿄도는 2013~2020기간 중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약 3조 엔으로 시산
  - 도쿄도의 시산은 국립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투자, 대회 운영비, 관객들의 숙박·음식 및 쇼핑 등 소비를 합산하여 분석한 것임
  - 이 같은 수요가 생산을 촉진하여 소득으로 연결되는 생산유발효과는 도쿄도 내에서 1조 6,573억 엔, 여타 지역도 포함한 전국 합계로 2조 9,609억 엔
  - 고용은 전국적으로 15만 2,000명의 유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그러나 도쿄도의 시산에 올림픽 개최에 따라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고속도로 등의 정비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다이와증권에 의하면, 여기에 관광산업의 성장과 인프라정비까지 포함하면 150조 엔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미나 아시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관광산업이 올림픽 개최로 앞으로 7년 동안 배증한다고 가정하여 95조엔 증가, 나아가 일본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토강인화계획」에 의한 인프라정비가 55조엔 증가, 합계 150조엔 증가
- 기업수익과 주가에 대한 영향은,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평균주가가 금년 중 18,000엔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노무라증권이 예측
- 다이와연구소는 과거 개최국 중에는 올림픽이 끝나면 일과성 수요가 사라져 그 반동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공투자 등은 비용 대비 효과를 정밀조사한 후 성장전략 등 큰 정책의 방향성에 맞추어 필요한 것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 □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법인감세 확충 검토

- 일본정부가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감세제도 확충방안을 검토
  - 2012년보다 급여지급 총액을 5%이상 인상한 기업으로 하고 있는 현행 조건을 낮추는 것이 골자
  - 아베 총리가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기업들이 엔저 등으로 증가한 수익을 임금인상에 반영토록 촉진할 목적
  - \*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법인감세는 2013~2015년 한시적인 조치로 ①피고용자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기준년도 보다 5%이상 증가, ②급여총액이 전년도 수준을 하회하지 않고, ③피고용자 1인당 평균급여가 전년도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 하면 급여총액 증가분의 10%를 (중소기업은 20%)를 세액공제
- 그러나 일본 경제계에서는 동 제도의 이용 장벽이 너무 높다는(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의견이 많아 현행대로라면 이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지적
  - 이에 일본정부는 이용 기업들이 늘어나도록 5% 이상의 급여 증가 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
  - 피고용자 1인당 평균급여가 전년 수준을 하회해도 가능한 안도 부상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현금급여 총액은 6월과 7월 모두 전년 동월수준을 상회했으나 증가율은 1%이하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정부 내에서는 급여증가의 조건을 2~3%로 낮추는 안이 유력
- 일본정부가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감세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소비세 증세 경기의 하강을 완화시키려는 경제대책의 성격도 있음

## 4 일본기업동향

### □ 저패디스플레이 금년에 상장하여 한국, 대만 업체와 경쟁

- 중소형 액정패널 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제1위인 저패디스플레이가 금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방침
- 시가총액 7,000억 엔 규모의 대형 상장으로 2,000억 엔 전후의 자금조달이 예상되며 스마트폰용 패널의 증산투자 등에 충당함으로써 한국과 대만기업들을 따돌리겠다는 구상
- 70%의 주식을 보유한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최초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케이스임
- 일본 전자업체들은 반도체와 액정패널 등의 기술개발에서는 앞섰으나, 이후 투자경쟁에서 한국과 대만기업의 추격으로 경쟁우위를 상실했다는 관련 업계의 평가
- 동사는 2012년 4월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소니 등 3개사의 중소형액정사업을 통합하여 탄생된 기업으로서, 당시 일본기업들은 TV용 액정패널분야에서는 한국 및 대만기업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중형분야에서는 우위를 유지
- 저패디스플레이는 상장으로 확보되는 자금을 생산설비투자 외에 차세대제품인 유기EL패널의 연구개발비용에 충당, 글로벌경쟁에 대비한다는 전략
- 중소형 액정패널은 TV용보다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저패디스플레이와 경합중인 샤프, LG디스플레이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만 외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예상되고 있음
- 저패디스플레이는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여 선두 자리를 굳히려는 전략

### □ 미쓰비시상사 인도네시아에 식품 서플라이체인 구축

- 미쓰비시상사가 100억엔 이상의 투자비용을 들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의 서플라이체인을 구축, 현지 유통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일본계 기업 등이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동사와 식품업체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비롯하여 냉동·냉장식품도 취급하는 물류망을 정비

- 미쓰비시상사는 인도네시아의 알파그룹과 제휴하여 식품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동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약 50개의 물류창고와 8,500개점에 이르는 소형 슈퍼와 편의점을 가진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유통업체
  - 미쓰비시상사는 알파그룹과 합작으로 애트리패시픽(AP)을 설립, AP사가 식품 메이커와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된 가공식품을 알파그룹의 소매점에 판매할 계획
    - AP사의 자본금은 35억엔, 출자비율은 알파그룹이 60%, 미쓰비시상사가 40%
    - 알파 그룹은 자카르타와 스라바야에 대형 창고를 가지고 식품도매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냉동·냉장품에 적합한 저온 물류망은 정비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미쓰비시상사가 노하우를 제공하여 3년 후에 유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전용트럭 등의 도입도 추진 중
- 미쓰비시상사는 식품의 원료조달도 병행할 계획
  - 현지 밀가루제조업체인 스리보가에 출자, 마가린과 크림 등 가공유제품 생산은 카네카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1,800만 톤 정도의 공급체제를 정비
- 인도네시아의 식품시장 규모는 2009년에 5조 5천억 엔 정도인데, 중간층 확대 등으로 편의점과 슈퍼 등의 입점수가 연율 30%의 증가율 보이고 있어, 2020년에는 17조 5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 미쓰비시상사는 원료와 판로 확보, 물류망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식품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고 제휴기업을 늘려, 인도네시아에서의 식품사업 매출액을 5년 내 연간 100억 엔 이상으로 늘릴 계획



## 5 한국관련워치

### □ 한국, TPP가입 검토

- 닛케이신문이 한국정부가 TPP 참가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 지금까지 지켜 본다는 입장에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 TPP교섭에 참가한 일본이 FTA망을 구축하여 맹추격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며, 농산물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내조정은 난항이 예상
- 한국정부는 6월에 새로운 FTA전략을 발표, 교섭중인 한중FTA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등과 2국간 교섭을 서두를 방침을 명기
  - TPP에 대해서는 거대시장을 활용할 가능성과 국내적인 영향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할 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었다는 것
- 그런데 일본이 3월에 교섭참가를 표명한 때는 잠잠했던 한국정부가 일본의 정식 TPP교섭 참가가 발표된 7월 하순경부터 변했다고 일본정부소식통이 전함
  - 2국간 FTA에서 앞섬으로써 일본기업과의 수출경쟁에서 우위에 선 한국의 전략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현실감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 한국정부에 의하면, 현재는 한국의 FTA발효국과의 무역은 전체의 35%, 일본은 19%이나, 일본이 TPP와 일본·EU 등 교섭중인 협정을 발효시키는 경우 5년 후에는 64%로 한국에 육박하는 수준임
- 닛케이는 한국정부가 8월말 이후 TPP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환경정비가 시작되고 있어, 빠르면 금년 중 교섭참가를 표명하고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초 교섭에 참가한다는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
- 그러나 참가표명까지 조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
  - 반미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미국주도의 TPP에 대한 거부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2015년부터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쇠고기에 관한 한미 합의를 TPP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국내 반발이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것
  - 한미 FTA까지는 괜찮으나 TPP는 안된다고 한국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對중국배려 차원에서 TPP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①한중FTA가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이 생겼고, ②TPP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중국에도 변화가 보여 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이해를 얻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뉴스 보도

## □ 미쓰이물산, 대우건설과 협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신 화력발전

- 미쓰이물산이 프랑스 대형 전력업체 GDF수에즈와 제휴, 모로코에서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사업에 착수
  - 총사업비 3,000억 엔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최첨단발전소를 2017년 중 가동 예정
  - 연률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모로코의 전력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서 인프라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전초적인 역할을 담당
- 미쓰이물산은 수에즈, 모로코 정부계 투자회사 나레바와 공동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합작회사를 모로코에 설립하게 되는데, 출자비율은 수에즈와 나레바가 각각 35%, 미쓰이물산이 30%
  - 건설비와 초기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3,000억 엔으로, 이중 20~30%를 3개사의 출자금으로 나머지를 은행차입으로 충당
- 발전소의 설계·건설 업무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한국 대우건설그룹에 맡겼으며, 증기터빈 등 주요 기기는 일본제품 사용을 검토
- 아프리카와 신흥국의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일본의 상사들이 전력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미쓰이물산은 수에즈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각국에서 전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700만 킬로와트의 발전용량을 앞으로 5년 내 최대 1,200만kw까지 확대할 계획